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 또 <하루의 일>이 시작되는 새벽이 왔습니다.

주를 통해 전해 주는 말씀은

<한 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렇게 귀합니다.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늘 “더 잘하자.” 말씀하셨다. 고로 그 생각을 머리에 외우고 <일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말을 할 때>도,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하나 더 잘해야지.’ 하고 했다. 그러나 실제 해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았다.
2. <더 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잘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도 많다.
3. <월명동>도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하려다 보니 위험도 많았다. 지금은 ‘더 잘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맨 마지막에 고깔을 씌우는 것’과 같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얹는 것’과 같다. 더 잘하기만 하면, 완전히 다르다.
4. <더 잘하는 것>에 대해 일례로 말하면, <일반 사람>은 ‘시멘트’를 바르면 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잘하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멘트를 바르는 것을 끝으로 안 보고, 거기에 ‘대리석’을 갖다 입힌다. 그런데 <더 잘하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각’을 만들어 놓는다. <조각>까지 만들어 놓으면, ‘더 잘하기’가 끝나는 것이다.

5. 더 잘하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렇게 좋아하신다. 마치 자기 애인이 흠 없이 살 때 좋듯이 그리 좋아하신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더 잘하려고 할 때’는 생각나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6.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할 때>는 쳐다만 보고 그냥 놔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니시다. <더 잘하려고 할 때>는 한없이 도우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왜? ‘흠 없이 더 완벽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7. ‘자기 사랑하는 자’가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꺼려지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 겁이 나고, 마음속의 사랑도, 행실의 사랑도 다 줄 수가 없다.

8. <주>는 여전하고, <하나님>도 여전하시다. 안 변한다.

9. <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

10. <주의 자리>는 ‘영원한 자리’요, ‘최고의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다. 고로 뺏기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성, 이성과 비교가 안 된다. 인간으로서는 생각을 못 한다.

<주의 자리>도 그러하고, <위치>도 그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러하기 때문에 ‘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따르는 자들>은 변한다. <휴거된 자>도 변한다. <완전한 단계, 완전한 세계>가 되기까지는 변한다. 가령 돌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다 오르기 전에 돌을 내려놓으면 밑으로 굴러갈 수 있으니 위험하다. 아예 끝까지 올라가서, 산을 넘어서 갖다 봐야 완전하다. <미결수 인생들>도 그러하다.

11. <주>는 안 변한다. 변한 적이 없다.

12. <구약시대>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영원성을 가지고 끝까지 했다. <선지자들>도 끝까지 다 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갔어도 변함없이 행했다. 이같이 <이 시대 보낸 자>도 그동안 역사를 펴 오면서 변함이 없었다. 행실도 변함이 없었다. 고로 25년, 27년 전에 섭리를 나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말하기를, 그는 어제 봤던 사람 대하듯 똑같이 대한다고 했다. <주>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이 가다가 변한다. 약하기 때문이다. 고로, 더 잘해라. 더 잘해서 완성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도 성령님도 생각나게 해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시니, 더 잘해라.

13.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종 기쁨이 많다. 무엇이 기쁨가 하니, ‘자꾸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건>도 완전하게 만들고, <사람>도 완전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 ‘큰 기쁨’ 중의 하나다.

14. 늘 완전해라. 그러면 사고가 나도 안 죽는다.
15. 완전하게 행해라.
16. <완전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사고’가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완전성>인데 ‘사고’가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17.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란 어떤 단계까지 해야 하는지 비유로 말하건대, 가령 횡단보도가 있다 하자. <완전하게 하는 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좌우를 살핀다. 그런 데도 사고는 난다. 완전해야 된다. <더 완전하게 하는 자>는 아예 횡단보도로 안 가고 돌아서 ‘지하도’나 ‘육교’로 건너간다. 이러한 <완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 자기가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은 안 한다. 돌아가더라도 ‘완전성’ 있게 한다.
18. 밑에 물이 흘러가는데, 자신이 없으면 뛰지 말아야 된다. 옆에서 누가 “한번 뛰어 봐.” 한다고 해도, 분위기로 흘러서 뛰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빠져 버린다. <완전하게 하는 자>는 평소에 하던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안 뛰고 돌아간다.
19.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완전하게 만들기’다. <완전하게 만들 때> 성취감이 그리도 크다.
20. <선생>도 무엇을 하면, 밤을 새워 끝까지 한다. 그때 기어코 해야 된다. 성령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할 때 해라. 열났을 때 해라. 그리고 흥분됐을 때 해라.” 하셨다. 어느 때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때의 사건이 있어서 해야 될 것도 있다. 그때는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고로 ‘판단력’ 이 좋아야 된다.

21. <선생>은 불을 차면서도 ‘다른 것’ 까지 생각한다. 그러니 <인생>을 ‘배(培)’ 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섭리사 전체의> 것>이 되니까 자꾸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한다.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좋게 하는 것’ 을 한다.

22. 인생의 각종 여건과 사건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항상 더 좋게 해야 된다. 더 좋게 해 놓고 보면, 그렇게도 좋다.

23. 더 좋게 해라.

24. <글>을 써 놓고도, <편지>를 써 놓고도 ‘더 좋게 하는 방법’ 이 얼마든지 있다.

25. 동(銅) - 은(銀) - 금(金)까지 해서 ‘금’ 을 얻었어도, 한 번 더 용광로에 끓이면, ‘순도가 높은 금’ 이 된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은 끝도 없다.

26. 할 수 있는 한 더 좋게, 최고로 해 버려라.

27. <더 좋게 하라는 기간>에 ‘월명동’ 도 여러 가지를 더 좋게 해 놓았다. 와서 보면, 표가 날 것이다.

28. 저마다 생활 가운데 <개인의 것>도 ‘더 좋게 해야 될 것’ 이 많고, <섭리사의 것>도 ‘더 좋게 해야 될 것’ 이 많다. 고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
29.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좋게 하려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더 투자해야 된다.” 하셨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된다. 그때는 힘들지만, 다 해 놓으면 보람을 누리며 매일 귀히 쓰게 된다.
30. <더 잘하는 것>은 더 잘하려는 ‘정신’ 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으면 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 진다.
31.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더하면, ‘더 하고 싶다는 생각’ 을 하게 된다. 고로 열심히 하되, 꼭 ‘말씀’ 을 자꾸 들어야 된다.
32. 더 잘하면, 하는 대로 좋아진다. <경제> 활동을 더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 ‘경제’ 에 도움이 되고, <노래>를 더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 ‘더 좋은 노래’ 가 나온다. <말씀>도, <기도>도 더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 거기서 ‘더 좋은 것’ 을 얻게 된다.
33. 더 잘하려고 연구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더 잘되고, 결국 ‘더 엄청난 것’ 을 얻게 된다.

34.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을 자꾸 주신다. 마지막에서 ‘큰 것’ 을 주신다.
35. <역사의 끝>은 ‘성약역사’ 다. <끝>에는 항상 얻어야 된다. 못 얻으면 안 된다.
36. 신약 사람들은 끝의 것은 얻을 수 없다. <당세>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 영계에서는 도전할 수 있다. <육>은 ‘도전의 길’ 이 끝나도 <혼>과 <영>은 ‘도전의 길’ 이 다시 있다.
37. <신약 때> 태어난 자들은 ‘지금 당세 역사’ 에 참여할 수가 없다.<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당세에 태어난 사람들> 은 ‘시대 하나님의 역사’ 에 참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고로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인간의 육>으로는 그 귀한 것을 잘 모른다.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 기도해서 영계로 들어가면, 그제야 ‘당세 역사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를 안다.
38. 선생이 삼위께 받은 이 섭리역사는 마치 캄캄한 밤에 그 많은 소의 털 가운데 딱 하나 있는 ‘흰털’ 을 뽑은 것과 같다. <섭리사에 온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입장이다. 섭리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 “너나, 나나 다 여기 왔구나.”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10만 명 중의 ‘하나’ 가 온 것과 같다. 10만 명이면 축구장이 꽉 차는데, 그중 ‘하나’ 라는 것이다.
39. 지금 섭리사에 안 왔으면 무슨 삶을 살고 있을지, 무슨 희망으

로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섭리사의 운〉을 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함께 운행하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열차를 타고 가니, 사고가 없는 것이다. 만약 세상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뻔하다. 세상을 보며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40. 〈당세〉에 극으로 뛰고 달려서 ‘자기’를 만들고, ‘이상(理想)’을 만들어라. 〈월명동〉을 쳐다보면 거기에 ‘소망’이 많지 않느냐. 〈개인의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된다.

41.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으니, 하나님께 시집온 것과 같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결혼했으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

42. 〈시골 산골짜기에서 살던 여자〉가 ‘임금의 집’에 시집을 오니, 큰살림을 안 해 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궁궐을 뛰어다니기만 하면서 인생을 산다. 너무 엄청난 세계 속에서 사니, ‘엄청난 재물’도, ‘환경’도, ‘집’도 살필 줄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임금의 생각이 깊어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부 된 자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집을 생각하면 ‘주먹’만 한데, 월명동에 오면 ‘방’만 하니, 그것을 살피기가 정말 어렵다. 너무 엄청나서 그러하다. 이런 것도 기도해서 더 잘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고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내가 이런 곳을 가지고 있다. 여기 사장이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니 놀러 가자.” 해도 괜찮다. 그러다 상대방이 “당신 것 아니고 교단 것이네.” 하면, “내가 여기 개발할 때 같이 했다. 같은 주인이다.” 그러라는 것이다.

43. 더 잘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더 잘했는지 한번 내놓아 보아라.

◎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한히 행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